

사람의 잊음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본문: 창세기 40:16-2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eulsarangChurch/streams>(주소 클릭 ->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뼈아픈 순간은, 내가 가장 절박할 때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그를 고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인간적 동아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요셉은 그 캄캄한 감옥에서 2년이라는 지루한 침묵의 시간을 더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신과 잊음을 방지하신 이유는 요셉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사람의 자비로 풀려나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섭리였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던 비참한 강도의 외면받는 목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낙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그 캄캄한 자리는, 비로소 내 힘을 빼고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인정과 기억에 연연하며 서운함과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완벽하게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요셉의 정확한 꿈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남겨진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창 40:23)
2.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사 49:15)

[삶의 적용]

1. 내가 삶의 위기와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으려 했던 세속적인 동아줄(술 맡은 관원장)은 무엇입니까?
2. 사람들에게 섭섭함과 실망을 주는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오늘 나를 완벽한 타이밍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세상의 배신과 사람의 잊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여 최후 승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